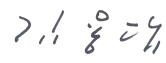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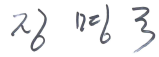










『생활인프라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내부 공간효율성도 뛰어나다』 등 단지의 장점 또는 핑크빛 기대만을 상세히 전하는 홍보성 내용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분양문의 전화번호도 실었다.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⑦ (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위원	정 승 호	
	장 명 국	
	이 동 현	
	장 인 철	
	김 규 식	
	강 희	
	하 윤 수	
	김 영 모	
	박 현 갑	
	박 미 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